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3, 573 - 585

공감능력과 관련된 성격특성 및 성차

김 용 희[†]
광주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공감능력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이타주의, 유머, 승화, 억제, 부정, 외향성, 신경증적경향성, 충동성,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율감, 연대감 및 자기초월의 성격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별(남, n=64, 여, n=52)에 따라 공감능력, 사회적 민감성, 연대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권위주의, 이타주의, 유머, 승화, 억제, 부정, 외향성, 신경증적경향성, 충동성, 자극추구, 위험회피, 자율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적 민감성, 부정, 승화, 외향성, 위험회피, 연대감, 권위주의였다. 남성의 경우, 부정, 연대감, 위험회피, 권위주의가, 여성은 이타주의, 외향성, 부정이 각각 공감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어 : 공감, 성격특성, 성차

공감(共感, empathy)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의미있는 치료자-내담자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관계는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Levinson, 1994). Pines와 Marrone

(2003)은 공감에 대한 정의에서 상대방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in-feeling, feeling into, movement in), 치료자는 두 가지 형태의 공감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능동적 공감과 수동적 공감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용희,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상담심리학과, 전화: 062-950-3677, E-mail : yngkim9@hanmail.net

대방의 생활을 조사하는 것이고, 후자의 공감은 상대방에 대해 열린 태도로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느끼고, 공명(resonance)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마치 양육자가 영아의 불편스러운 감정을 달래주듯이(soothing touch), 치료자가 환자를 대하는 것이라고 비유하였으며, 공감이야말로 환자와 대화할 때, 미묘한 측면을 민감하고 요령있게 안내해줄 수 있는 도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감의 개념은 심리치료의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Kohut의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에서 공감의 개념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부모가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영아의 자기대상(self-object) 발달에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영아의 미숙하고 원시적인 자기(self)가 응집력있고 복원력이 있는 자기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엄마와 영아의 애착이론의 개념인 '민감한 반응성(sensitive responsiveness)'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착이론의 입장에서 공감을 영아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Wilmer, 1968), 이는 마치 아기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감해주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어머니의 능력이야말로 아기의 발달에서 주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여기서 민감한 반응성이란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의 신호를 재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준다는 뜻이다(Ainsworth et al., 1978).

특히 아기의 부적 내면 상태- 예를들어, 화남, 짜증, 슬픔, 무력감-를 엄마가 민감하고 정확하게 알아채고 이에 대해 언급해 줄 때, 아이의 부정적

감정상태는 누그러지고, 위로받게 되며, 이로 인한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엄마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적인 언급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내면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며, 더 나아가 상대방인 엄마의 정서 상태에 대해서도 잘 추론하게 된다. 결국, 엄마의 도움으로 자신의 감정조절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상태를 잘 파악하게 됨으로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For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따라서 공감의 개념은 한 개인의 감정조절능력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능력과 같은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능력과도 깊은 관련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Saarni(1999)는 감정조절능력에 대해 기술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구별하는 능력, 감정 상태를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지칭하고 있어서, 공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감이란 굳이 치료나 발달적인 측면 이외에도, 일상적인 성인의 정신건강에서도 함축하는 바가 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감이란 감정적인 의사소통(affective communication)의 한 형태일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한 형태일 수 있으며, 비합리적인 측면의 이해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Pines & Marrone, 2003). 따라서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나 공감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해 공감의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

면, 대개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 발달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역할 수용(role-taking)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관점수용(perspective-taking)으로 정의하는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었다(Piaget, 1932; Mead, 1934). 그러나 이후로 공감의 정서적 측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후속 연구가 많아지면서(Eisenberg & Strayer, 1987), 공감이란 인지나 정서의 한 측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개의 차원과 과정이 관련된 대인간 반응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Davis, 1980,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성격변인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공감을 하는 대상은 내적으로 심하게 동요되는 일이 적고 비교적 평온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성격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정적 기분 상태일 때 쉽게 불안이나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의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공감능력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적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서(Fonagy et al., 1995) 주로 부인이나 경직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담아줄 수 있으려면 성격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숙되며, 미숙한 방어경향이 적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방어기제, 성격 변인과

공감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성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적이기 보다는 조화를 더 격려받으며, 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여아들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협동적이고, 지지적이고, 민감하도록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발달시키도록 한 반면, 남아들은 자기주장적이고, 경쟁적이고, 독립적이 되도록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을 발달시키도록 장려받아왔다(Eysenck, 2002).

이와 비슷하게 Best와 Williams(1997)도 동서양 25개국 남녀 대학생에게 성차에 연관된 형용사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성은 적극적, 지배적, 강한, 공격적인 형용사를, 여성은 소극적, 연약한, 민감한, 양육의 형용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개인차에 따른 예외를 감안하더라도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모든 문화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성취지향적인 면을,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장려받아왔으며,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입장을 더 고려하도록 미묘하게 압력을 받아왔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공감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서 각 성별에 따라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대상

서울, 경기 및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설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3명(남자 21명, 여자 42명)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남녀 간에 학력(남자 15.47년, 여자 14.80년)이나 연령(남 33.91세, 여 33.52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도구

공감척도

Davis(1983)와 Mehrabian과 Epstein(1972)의 공감척도를 신경일(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은 인지적 요인 3문항과 정서적 요인 18문항으로 총 21문항이며, 각 7점 척도이고, 내적 일치도는 인지 요인이 .69, 정서적 요인이 .81이었다.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

민경환(1989)이 개발한 척도로 전체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평가하며, 5점 척도 문항으로 각 문항의 합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이타주의 척도(Altruism):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1988)이 개발한 이화방어기제척도 중 이타주의 하위척도만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10문항으로 주로 주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로 인해서 느끼는 정서적 충족

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고 내적 일치도는 .76이었다.

유머 척도(Humor):

상기 설명한 이화방어기제척도(1988)중 하위척도로 10문항이며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자극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도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서 보다 낙천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검사에서는 유머스러운 감각이나 행동으로 갈등이나 좌절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승화 척도(Sublimation):

이화방어기제척도(1988)중 하위척도로 10문항이며, 원초적이며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던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출된다. 본 검사에서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을 운동이나 예술, 생산적인 작업 등으로 해소하는 경향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내적 일치도는 .75였다.

억제 척도(suppression)

이화방어기제척도(1988)중 하위척도로 10문항이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어떤 갈등이나 욕구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러한 감정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이에 대한 관심을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 내적 일치도는 .86이었다.

부정 척도(denial)

이화방어기제척도(1988)중 하위척도로 10문항이다. 부정이란 가장 원초적인 방어기제 중의 하

나로 의식화 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사용되며,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경험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적 일치도는 .66이었다.

아이젠크 성격차원검사(EPQ)

아이젠크성격검사(Eysenck & Eysenck, 1975)를 아이젠크와 이현수(1985)가 표준화한 것으로 모두 7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남녀의 신뢰도 계수는 외향성이 .80과 .78이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80과 .78이었다.

충동성척도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Scale-Adult; EPS)(Eysenck & Eysenck, 1991) 중 III부로 구성되어 있는 충동성 검사(Impul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78이었다.

기질 및 성격 평가척도(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TCI는 Cloninger, Svtakic, Przybeek(1993)이 개발한 척도로, 생물-유전적으로 결정된 기질과 환경적 영향으로 형성되는 성격을 측정하는 총 240문항이다.

기질 요소 중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NS)는 새롭거나 신기한 것, 잠재적인 보상 단서 등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는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극 추구 요소가 높은 사람의

경우 자극적인 모험을 추구하며 낯선 장소나 상황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 흥분을 느끼고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는 처벌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 억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 회피 요소가 높은 사람의 경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으며 지나치게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은 행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성향을 말하며 사회적 애착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성과 연관된다.

성격차원 중 자율감(Self Directedness: SD)은 자기결정과 의지력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순응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연대감(Cooperativeness: C)은 타인과 협력하고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능력과 관련되며, 자기 초월(Self-transcendent: ST)은 자신과 세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 존재나 우주와의 합일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기질 및 성격척도(Sung, Kim, Yang, Abrams & Lyoo, 2000)를 이용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계수가 .60-.87이었으며, 검사-재검 사신뢰도는 .52-.72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3.0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에서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공감 능력($t=-3.54, p<.01$), 사회적 민감성 ($t=-3.13, p<.01$), 연대감($t=-1.99, p<.05$)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타 성격

공감은 여러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권위주의($r=-.27, p<.01$), 이타주의($r=.38, p<.01$), 유머($r=.27, p<.01$), 승화($r=.38, p<.01$), 부정($r=-.37, p<.01$), 외향성($r=.38, p<.01$), 자극추구

표 1. 성별에 따른 차이값

	남(n=64)		여(n=52)		t-value
	m	sd	m	sd	
연령(년)	33.91	8.29	33.52	8.56	.24
교육연한	15.47	2.28	14.80	2.30	1.82
공감	74.46	8.29	80.09	8.73	-3.54**
권위주의	42.39	8.82	39.57	9.07	1.68
이타주의	15.40	3.21	16.09	3.26	-1.14
유머	16.00	3.59	15.96	3.52	.05
승화	15.43	3.10	16.30	3.45	-1.42
억제	17.29	3.38	17.59	3.48	-.46
부정	12.59	3.25	12.09	2.76	.87
외향성(E)	17.15	3.35	18.32	3.98	-1.71
신경증적경향성(N)	15.93	3.54	16.40	3.26	-.73
충동성(I)	16.85	3.17	16.25	3.62	.95
자극추구성향(NS)	17.68	5.48	16.92	6.01	.70
위험회피(HA)	19.98	6.03	19.52	4.76	.44
사회적민감성(RD)	14.65	3.42	16.66	3.32	-3.13**
자율감(SD)	22.25	4.61	22.80	4.57	-.64
연대감(C)	25.09	5.74	27.11	4.91	-1.99*
자기초월(ST)	16.01	4.46	17.68	4.57	-1.97

** p<.01 * p < .05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1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공감	-														
2 권위주의	-.27**	-													
3 이타주의	.38**	.07	-												
4 유머	.27**	.05	.33**	-											
5 승화	.38**	-.06	.38**	.24**	-										
6 억제	.12	.26**	.22**	.28**	.09	-									
7 부정	-.37**	.30**	-.01	-.01	-.03	-.04	-								
8 외향성	.38**	-.03	.07	.31**	-.14	-.12	-								
9 신경증적	-.03	.13	-.10	-.17	.09	-.09	.22**	-.03	-						
10 충동성	-.16	.09	-.31**	-.16	.04	-.22**	.13	-.02	.49**	-					
11 자극추구	-.20**	.09	-.21*	.01	.09	-.26**	.37**	.06	.39	.57**	-				
12 위험회피	-.09	.06	-.08	-.19**	-.11	.09	.28**	.35**	.52**	.17	.31**	-			
13 사회적민감	.48**	-.04	.37**	.23*	.21*	.06	-.19*	-.26**	-.25**	-.27**	-.28**	-.34**	-		
14 자율감	.17	.08	.33**	.24**	.11	.16	-.21*	-.20*	-.37**	-.48**	-.54**	-.49**	.34**	-	
15 연대감	.42**	-.02	.54**	.20*	.16	.24**	-.30**	-.16	-.46**	-.55**	-.62**	-.35**	.52**	.57**	-
16 자기초월	.26**	.11	.31**	.08	.09	.16	-.10	-.09	.04	-.10	-.06	.10	.32**	.09	.28**

* p < .05

($r=-.20, p<.01$), 사회적 민감성($r=.48, p<.01$), 연대감($r=.42, p<.01$), 자기초월($r=.26, p<.01$)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권위주의는 억제($r=.26, p<.01$), 부정($r=.3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표 2).

이를 기초로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 stepwise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표 3)를 보면, 전체를 대상으

로 하였을 때 공감의 설명력이 52%를 보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보면 사회적 민감성($\beta=.245, p<.001$), 부정($\beta=-.229, p<.01$), 승화($\beta=.205, p<.01$), 외향성($\beta=.316, p<.001$), 위험회피($\beta=.308, p<.01$), 연대감($\beta=.391, p<.01$), 권위주의($\beta=-.192, p<.01$)가 .19-.31으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공감에 영향을 미

표 3. 공감 능력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전체)

Predictors	Beta	t	Sig.
사회적 민감성	.245	2.909	.000
부정	-.229	-3.011	.003
승화	.205	2.838	.005
외향성	.316	3.976	.000
위험회피	.308	3.921	.000
연대감	.241	2.873	.005
권위주의	-.197	-2.753	.007

R=.72 R²=.52 Adj R²=.49 p<.000

표 4. 공감 능력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남성)

Predictors	Beta	t	Sig.
부정	-.286	-2.58	.012
연대감	.387	3.603	.001
외향성	.462	4.161	.000
위험회피	.370	3.175	.002
권위주의	-.207	-2.093	.041

R=.69 R²=.48 Adj R²=.45 p<.000

표 5. 공감 능력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여성)

Predictors	Beta	t	Sig.
이타주의	.409	3.395	.001
외향성	.340	2.811	.007
부정	-.254	-2.107	.041

R=.58 R²=.34 Adj R²=.29 p<.000

치는 성격변인들로 부정($\beta=-.286, p<.05$), 연대감($\beta=.387, p<.01$), 외향성($\beta=.462, p<.001$), 위험회피($\beta=.370, p<.01$), 권위주의($\beta=-.207, p<.05$)로 나타났으며, 48%를 설명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 공감에 영향을 주는 성격변인은 이타주의($\beta=.409, p<.001$), 외향성($\beta=.340, p<.01$), 부정($\beta=-.254, p<.05$)이었으며, 위의 변인들은 34%의 설명량을 보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서 부정, 외향성은 공통적으로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타주의가, 남성은 연대감, 위험회피, 권위주의가 공감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관련된 여러 성격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에서 성차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감능력은 권위주의, 이타주의, 유머, 승화, 부정, 외향성,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연대감, 자기초월과 같은 여러 성격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시, 공감능력에 영향력이 큰 성격변인으로 사회적 민감성, 부정, 승화, 외향성, 위험회피, 연대감, 권위주의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공감능력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에서는 부정, 연대감, 외향성, 위험회피, 권위주의가 공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에서는 이타주의, 외향성, 부정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감정을 느껴보는 것으로써 인

지적, 정서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이다. 발달적인 측면에서 공감 능력은 어릴 때부터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정서조절 능력의 일부로 간주해 볼 때 (Fornagy et al., 1995),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상태(state)적이기 보다는 성격 특성과 더 관련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도 지지되었다.

권위주의, 부정, 자극추구와 같은 성격이 많을 때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으며, 이타주의, 유머, 승화, 외향성, 사회적 민감성, 연대감, 자기초월과 같은 성격특성은 공감능력을 높이는 변인이었다. 권위주의가 많을수록 탈개인화(deindividuation)되며, 가치판단 시 사회 규준에 맞추어 행동하고 경직적인 태도가 많아지므로 한 개인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denial)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로서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타주의, 유머, 승화는 좀 더 성숙된 방어기제이고, 외향성, 사회적 민감성, 연대감, 자기초월 역시 타인 지향적인 면이 강한 성격변인들로서 공감과 관련되었다.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남녀에게 모두 공통이 되는 변인으로 외향성과 부정이 나타났다. 각각의 변인이 공감에 미치는 설명량이 다른 변인들 보다 약간 큰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이젠크 성격질문지(EPQ)의 외향성은 성격의 다양한 측면 중 각성수준과 관련이 있다. 특질 각성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외향성인 사람은 강한 자극을 선호하고, 결과적으로 자극추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Eysenck, 1967).

반면 내향성인 사람은 특질각성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한 자극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회피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Byrne와 Eysenck(199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동음이의어를 제시했을 때,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내향성이 높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편파를 보여, 외향적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였다. 또한 성격과 기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외향성은 주로 정적인 정동과 연관되었다(Costa & McCrae,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외향성자는 타인과의 교류를 즐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자극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공감이 중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부정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인정하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경험을 부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공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정적 감정을 호소할 때 이에 대해 자아에 심한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쉽사리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따라서 부정방어를 통해 상대방과 분리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에서도 회피경향성이 강하고, 현실에 맞닥뜨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낮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로 여성에서는 이타주의가, 남성에서는 위협회피(HA) 변

인이 공감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화방어기제의 척도는 주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적 충족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타주의 척도는 어떤 다른 척도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어적으로 남에게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따라서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보이려고 하며 타인의 욕구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면이 남성보다 더 강할수도 있음이 시사된다.

위협회피(HA) 변인은 Cloninger의 기질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비판적인 걱정, 불안, 낮은 사람에 대한 수줍음과 관련되며 주로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에서 걱정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며 때로는 불편해 하는 경향이 많은 남성이 공감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감이 여성에서는 이타주의와 같은 긍정적 변인과 관련되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공감 능력에서 성차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남자는 경쟁, 능력, 독립심을 격려받으며 성인이 되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관계 유지에 익숙해 지게 된다. 반면 여자는 협동, 지지, 순종을 장려받으며, 성인 여성은 대개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 등 직접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일을 일차적 과업으로 맡기 때문에 사적인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에 더 비중을 둔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서 공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남성에서도 외향성, 연대감, 권위주의와 같은 변인이 공감과 관련되는 것은 건강한 타인지향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나, 위험회피 요인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다소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감을 많이 한다는 의미로 남성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성역할과 성차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며 남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전남의 성인이었다고,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 남성과 여성에 관한 차이가 시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증은 직접적인 성차의 검증이 아닐 수 있어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공감과 성격변인들의 관계를 탐색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감과 관련된 실험과 같은 엄격한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 강원섭, 김용희, 장환일 (2006). 한국판 의사 공감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정신병리학*, 15, 1, 2, 11-18.
- 김인수, 김용희, 장환일 (2004). 한국판 의과대학생 공감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병리학*, 13, 1, 2, 9-15.
-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 1, 44-69.
-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이화 방어기제 검사. 하나의학사, 서울.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4, 146-168.
- 박광배(1993). 사랑과 일에 대한 일-가정의 상충효과: 남성들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 185-197.
- 손인기, 이종훈, 조인희, 남범우, 박진욱, 이광현, 사공정규, 송창진 (2002).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문의의 환자중심적 태도. *신경정신의학*, 41, 2, 290-297.
- 손진욱 (2000). 자기심리학개관. *정신분석* 12, 1, 232-244.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연구보*, 29, 1-37.
- 아이젠크, 이현수 (1985). 성격차원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전경구(1997). 한국판 STAXI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10-21.
- 전경구(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18-32
- Ainsworth, M.D.,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very, J. (1985). Lawyers tell what turns some patients litigious. *Medical Malpractice Review*, 2, 35-37.
- Best, D.L., & Williams, J.E. (1997). Cross-cultural view point. In A. E. Beall & R.J. Sternberg(Eds.), *Perspectives on the psychology of gender*. New York: Guilford

- Press.
- Byrne, A., & Eysenck, M.W.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positive and negative interpretive bia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849-851.
- Cloninger, C.R., Svrakic, D.M. & Przybeck, T.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osta, P.T., & McCrae, R.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avis, H. M.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 Press.
- Eysenck, H.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Eysenck, H.J., & Eysenck, S.B.G. (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lder & Stoughton.
- Eysenck, M. (2002). *Simply psychology*. 2nd ed. Psychology Press.
- Fonagy, P., Steele, M., Steele, H., Leigh, T., Kennedy, R., Mattoon, G. & Target, M.(1995). Attachment, the reflective self and borderline states. In Goldberg, Muir, & Kerr(eds) *Attachment theory*. NY. Analytic Press.
- Glass, R. (1996).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Journal of American Psychiatry, 275*, 147-148.
- Hazan, C. & Shaver, P.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ojat, M. (2002). Empathy in medical students as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clinical competence and gender. *Medical Education, 36*, 1-6.
- Hojat, M, Mangione, S., & Nasca, T. et al. (2001).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Educational Psychology and Measure. 20*, 11-16.
- Krupat, E., Rosenkranz, S., Ueager, C., Bamard, K., Putnam, S., & Inui, T. (2000). The practice of physicians and patients: the effect of doctor-patient congruence on satisfaction. *Patient Education Counseling, 39*, 49-59.
- Levinson, W. (1994).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 key to malpractice prevention. *Journal of American Psychiatry, 273*. 1619-1620.
-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a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 Pines, M. & Marrone, M. (2003). Empathy and sensitive responsiveness. In Coritina & Marrone (eds) *Attachment theory and the psychoanalytic process*. London. Whurr

Publishers.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Guilford Press.

Sung S. M., Kim J.H., Yang, E., Abrams, K.Y. & Lyoo, I.K. (200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omparative Psychiatry*, 23, 102-117.

Wilmer, H. (1968). The doctor patient relationship and the issues of pity, sympathy and empath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1, 243.

논문접수일: 2007년 7월 31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9월 6일

게재결정일: 2007년 9월 14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3, 573 - 58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athy, personality trait and sexual differences

Yong Hee Kim

Kwangju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relationship of the empathy and personality traits - authoritarianism, altruism, humor, sublimation, suppression, denial, extraversion, neuroticism, impulsiveness,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self directedness, cooperativeness, and self transcendent - and to examine the sexual differences. Male 64, female 52 were participated. Empathy, reward dependence, cooperativen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d by sex. But authoritarianism, altruism, humor, sublimation, suppression, denial, extraversion, neuroticism, impulsiveness,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and self directedness were not differed by sex. In regression analysis, reward dependence, denial, sublimation, extraversion, harm avoidance, cooperativeness, authoritarianism had significant effected to empathy. In male, denial, cooperativeness, harm avoidance, authoritarianism and in female, altruism, extraversion, denial are predictable variables of empathy. Finally, the discuss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y were included.

Keywords : empathy, personality trait, sexual differences